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7. 20(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포항공항 '김포·제주로 다시 난다' ... 진에어 31일 취항 7.20일 포항시청, 포항공항 활성화 위한 5개 관계기관 협약 체결 7.31일부터 진에어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 여객기 신규 취항	통합신공항 추진단	
②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조건부 가결... 정주여건 개선 기대 제6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원안가결 2건, 조건부허가 2건	도시계획과	
③ 경북도, 도내실업팀 인권침해 심층조사 착수 1차 50개팀 377명 조사, 2차 경북체육회 소속 컬링팀 운영관련 집중조사 등	체육진흥과	
④ 경북도, 공공부문 산림 일자리 확대한다! 산림보호지원단 등 공공일자리 300여개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	산림자원과	
⑤ 우리가 마시는 생수, 안전한가요? 경북도내 유통 중인 생수 수질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경북도 분기별 3-5회씩 검사 실시, 상반기 7개 지역 35개 제품 검사	맑은물정책과	
⑥ 7월31일까지 군위 '소보' 유치신청 반드시 이끈다! 7.19일 긴급비상간부회의 개최, 도차원 모든역량 소보 유치에 지원 시민단체 주도로 군민설득 진행.. 경북도도 전폭적인 지원 약속 ※ 7월 19일(일) 추가 보도자료로 송부한 자료입니다.	통합신공항 추진단	
추가 군위 '소보' 유치신청 위한 본격적인 군민설득 돌입! '다시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 7.20일 본격적인 설득작업 나서 李지사, 權시장과 함께 "대승적 결단" 촉구... 전면적 지원에 들어가	통합신공항 추진단	

【 민선7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정책방향 실국별 기획 보도자료 】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민선7기 전반전, 경북 문화관광은 변화의 새바람 ! 후반전, 코로나 19 이기고 힘찬 시동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출범 및 관광진흥기금 100억원 조성(10년간 1천억 조성) 경북문화재단 설립,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들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강화 경북도, '한국의 서원(소수옥산·도산·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성공 포스트 코로나, 청정힐링안전한 콘텐츠 발굴로 뉴노멀 관광트렌드 선제적 대응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20(월)】	담당부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작성 자	단 장	최혁준		
			팀 장	이원호	담당자	김창욱
연 락 처	054-880-8842					

포항공항 ‘김포·제주로 다시 난다’ 진에어 31일 취항

7.20일 포항시청, 포항공항 활성화 위한 5개 관계기관 협약 체결 -
 7.31일부터 진에어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 여객기 신규 취항 -

경상북도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한국 공항공사, (주)진에어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정호 (주)진에어 대표이사, 경상북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월 31일부터 진에어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 여객기 신규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5월부터 대한항공이 포항~김포노선을 운행했으나,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김포노선을 운휴했으며, 제주노선도 코로나19로 인해 2월 28일부터 운항을 중지해 포항공항의 하늘길이 멈춘 상태였다.

지난해 경북도는 김포노선의 유지를 위해 국회와 대한항공 본사를 수 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했으나, 대한항공이 김포노선의 재정적자로 노선 유지에 난색을 표하면서 김포노선 운항이 결국 중단됐다. 그러나 포항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항행안전시설 개선과 포항 테크노폴 계획 등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했고, 저가항공사의 문을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에서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 등 지자체는 재정지원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취항하는 항공사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운항지원과 착륙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포항

공항의 시설개선까지 약속했다,

포항공항에 신규 취항하는 (주)진에어는 이번 기회에 포항공항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요금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진에어는 포항공항에서 7월 31일 취항을 목표로 운항 준비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포노선은 하루 2편, 제주노선은 하루 4편 운항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 동안 경상북도에서는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관련용역 수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면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잡은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해 포항공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포항공항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계획

□ 협약 개요

- 일 시 : '20. 7.20.(월) 오전 11:00 ~
- 장 소 : 포항시청 대회의실(4층)
- 협약기관 :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주)진에어
- 참 석 자
 - 지사님,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정호 (주)진에어 대표이사
 - ※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8부로 운항중지(향후 포항노선 운항 철수 예정)
- 협약내용
 -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 : 항공사 재정지원 및 활성화 홍보
 - ※ '19년 지원예산 : 19.14억원(도5.74, 시 13.4), 총 지원액 : 55.84억원('16~'19)
 - 한국공항공사 : 운항 지원 및 사용료 감면 혜택 등
 - (주)진에어 : 항공 수요 확보 위한 판매 및 마케팅 시행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1:00	30'	○ 티타임	접견실(4층)
11:00 ~ 11:02	2'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아나운서)
11:02 ~ 11:05	3'	○ 협약취지 설명	포항시 대중교통과장
11:05 ~ 11:20	15'	○ 인사말씀	도지사, 포항시장, 경주시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주)진에어 대표이사
11:20 ~ 11:25	5'	○ 협약서 서명	협약기관(5개기관)
11:25 ~ 11:30	5'	○ 기념촬영 및 폐회	
11:30 ~ 12:30	60'	○ 이동 및 오찬	삼오복집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20(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작성 자	과 장	김 규 율			
			팀 장	도영호	주무관	정성길	
		연 락 처	054-880-3918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조건부 가결... 정주여건 개선 기대

- 제6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원안가결 2건, 조건부허가 2건 -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①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조건부, ②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원안, ③봉화 개발행위(오미산 풍력발전단지) 허가 → 원안, ④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 조건부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영주시 휴천동 일원의 도심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개발(A=3만2672㎡, 416세대) 사업으로,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밖 주변도로(소로3-A)에 보도 추가 확보 후 연결 검토 등으로 재심의 된 안건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소로3-A)를 기존 6m에서 10m로 확장해 연결하고 공원·주차장 등 주민 이용률 제고방안을 검토·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조건부 가결됐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기존 노후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와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에 새로운 주거단지 확충 및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은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일원, 기존의 청도박물관 및 한국코미디타운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문화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8660㎡)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됨으로서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이용자 편의와 문화 공간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봉화 개발행위(풍력발전단지) 허가’ 건은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일원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9만6095㎡/58.8MW)로 허가권자는 봉화군수이나 허가규모 초과(3만㎡이상)에 대해서는 도 심의대상으로 이번에 심의하게 되었으며, 개발 대상지의 식생 수목 및 지형훼손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부합하는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주민 신규고용(30명 정도) 창출 및 전국 최초 주민공동참여(20%)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은 문경시 전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223만7천㎡)을 주변 토지이용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에서는 경북도의 검토의견 반영 및 일부 지역에 대하여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 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경시에서는 비도시지역의 일부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해소와 더불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묶인 지역이 해제된 만큼 주민불편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당한 용도지역 변경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7.20.(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작성 자	과 장	장 철 응		
			사무관		담당자	김숙현
		연 락 처	054-880-3223			

경북도, 도내실업팀 인권침해 심층조사 착수

- 1차 50개팀 377명 조사, 2차 경북체육회 소속 컬링팀 운영관련 집중조사 등 -

경상북도는 경주시 철인3종팀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도 및 시·군 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긴급실태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접수되어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2차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7월 6일부터 현재까지 경주시와 해외전지훈련, 군 입대 선수 등을 제외한 377명의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1차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얼차려 등 폭행 및 성폭행 사례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체육회 소속 컬링팀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확인되어 관련 사항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미 조사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7월 20일부터 조사단은 도체육회의 컬링팀 해외훈련 및 대회참가에 대한 승인 지연 및 승인 불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감사처분에 대한 미조치, 컬링팀지도자 임용 지연, 도체육회 컬링담당 부서장에게 제기된 문제점, 동계체전 참가팀 선정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 할 예정이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1차 조사결과 드러나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자를 엄중문책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없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7.20.(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작성 자	과 장	김 재 준			
			팀 장	엄태인	주무관	정남권	
		연 락 처	054-880-3591				

경북도, 공공부문 산림 일자리 확대한다!

- 산림보호지원단 등 공공일자리 300여개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늘어나는 실직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산림보호지원단 등 공공부문 산림일자리 사업에 28억을 투입해 하루 평균 3백여명(연인원 3만명, 5개월)의 공공일 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 산림사업은 험악한 지형 여건상 기계화가 어려워 노동 집약도가 높은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실직자들에게 단기일 자리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특히, 경북의 산림은 60~70년대 이후 황폐화된 산지를 복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산림을 조성해 형질이 불량한 임목이 산림 곳곳에 산재해 있다. 조림, 숲 가꾸기, 임목벌채 확대 등을 통해 산림 생산성을 높이는 산림재구조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도는 올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숲 가꾸기 2만5900ha 468억원, △공공산림 가꾸기 46억원, △나무심기 2230ha, 229억원을 조기에 발주해 1600여명(연인원 32만명)의 일 자리를 창출했으며,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사업공백을 메우기 위해 3차 추경으로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림보호지원단 200명, 산사태 현장예방단 44명, 바이오매스 수집단 44명 등 300여명의 공공일 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산불,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방치임목, 임목폐기물 등 미이용 산림산물을 수집해 펠릿 등으로 가공해 자원 활용도를 높이

고,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 및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산림재해 일자리 분야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실직 등으로 어려워진 도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숲에서 코로나 극복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산림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숲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겠다” 고 말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없음>

숲가꾸기 과정



	보도자료 【20. 7. 20(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물정책과			
		작성자	과장	윤봉학		
			팀장	김종구	주무관	박세정
연락처	054-880-3573					

우리가 마시는 생수, 안전한가요?

- 경북도내 유통 중인 생수 수질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
- 경북도 분기별 3~5회씩 검사 실시, 상반기 7개 지역 35개 제품 검사 -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생수)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먹는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분기별 3~5회씩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7개 지역에서 총 35개 제품을 수거했다. 수거장소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소규모 점포 등이며 무작위로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52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 경북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 4개소 - (주)동천수, (주)로진, (주)상원, (주)청도샘물

또한, 점검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무허가 제품은 압류해 폐기처분 한다.

경북도는 하절기를 맞아 먹는샘물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제품의 표시기준 적합여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및 무허가 먹는샘물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봉학 맑은물정책과장은 “먹는샘물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 후 가급적 빨리 음용하기를 당부하며,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부정·불량한 먹는샘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없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7.19.】	담당부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작성자가	단장	최혁준		
			팀장	김미정	주무관	김성호
연락처	054-880-8834					

7월31일까지 군위 ‘소보’ 유치신청 반드시 이끈다!

- 7.19일 긴급비상간부회의 개최, 도차원 모든역량 소보 유치에 지원 -
- 시민단체 주도로 군민설득 진행.. 경북도도 전폭적인 지원 약속 -

이철우 도지사는 7월 19일(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긴급비상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지원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회의에서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려있는 통합신공항이 10여일 안에 판가름난다. 대구·경북이 사는 길은 신공항뿐이다. 7월 31일까지 군위 ‘소보’ 신청이 없으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경북도도 위원회의 설득 작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에 모든 공직자는 사즉생(死即生)의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부 군민들 중에는 아직도 단독후보지(우보)가 이전지로 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선정위원회가 이미 ‘우보’ 부적합을 결정한 이상, 소송을 하더라도 더 이상 되돌릴 수는 없다. 공동후보지(소보-비안)만 남은 상황이다”며,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군위군이 7월 31일까지 ‘소보’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진심은 서로 통하리라고 본다. 군위를 포함한 대구경북의 대역사를 열 새로운 하늘길이 열릴 수 있도록 군위군민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7월 20일 대구시장과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군위

군으로 장소를 옮겨 남은 기간 동안 군위군 내에 머물며, 군위군에서 설득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편,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7월 20일 군위읍에 현장사무소를 개소하고, 도내 각종 시민단체와 연계해, 이번 달 31일까지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설득에 매진할 예정이며, 경북도도 보조를 맞추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20(월)】	담당부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작성자	단장	최혁준			
			사무관	김미정	주무관	김성호	
		연락처	054-880-8834				

군위 ‘소보’ 유치신청 위한 본격적인 군민설득 돌입!

- ‘다시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 7.20일 본격적인 설득작업 나서-
- 李志사, 權시장과 함께 “대승적 결단” 촉구...전면적 지원에 들어가-

다시뛰자!경북 범도민대책추진위원회는 7.20(월) 16시 40분 군위읍에 위치한 현장사무소에서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한 대군민 호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득전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피땀 흘려 노력해 주신 군위군민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수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소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고 밝혔다.

같은 날 이철우 도지사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15시 대구시청에서 군위군민과 시도민들에게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보 단독후보지를 갈망하셨던 군민들께서 느끼시는 허탈함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군위군의 미래와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해 충정어린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신공항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후 17시에는 군위군청에 방문해 군위군수와 면담을 한 후, 현장사무소로 장소를 옮기며 군민 설득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한편, 도는 21일부터 도지사를 포함한 도간부 전원이 나서 군위를 방문하는 도단위 시민단체의 설득 활동 등 전 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

으로, 7월 31일까지 반드시 군위 ‘소보’ 유치신청을 이끌어낼 계획
이다. 남은 10여일에 통합신공항의 운명이 결정된다.

<사진별첨>

통합신공항 군위 '소보' 유치 신청을 위한 호소문

존경하는 군위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군위와 대구경북의 역사와 미래를 결정지을, 참으로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슬한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치열했던 역사를 감내해 온 군위군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간 피땀 흘려 노력해 오신 군민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진통과 갈등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 온 통합신공항은 이제 '사업 무산' 아니면 '소보 신청'이라는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일 선정위원회에서는 단독후보지(우보)는 더 이상 이전부지로 부적합하고, 공동후보지(소보-비안)도 7월 31일 까지 시한을 두어, 그때까지 군위군의 '소보'신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으로, 우보 유치를 간절히 희망해온 군위군민들께서 느끼셨을 큰 실망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보를 끝까지 지키겠노라 소송까지 불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 무거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후보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령,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당 기간이 흘러버려 다시 우보를 이전 부지로 재결정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상, 7월 31일까지 군위군의 '소보' 신청이 없다면, 사업은 무산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과거 공항 유치를 희망하던 군위군민이 꿈꾸던 미래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경북의 작은 시골마을이었던 곳에, 새로운 도시와 넘쳐나는 일자리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길게 뻗은 하늘 길을 통해 수없이 많은 비행기가 머리위로 날아다니며 전 세계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경북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도시로 재탄생하는 군위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꿈은 통합신공항이 이루어졌을 때 만 가능한 미래입니다. 무엇보다 공항유치를 위해 군민들이 흘린 수년간의 땀방울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군위와 함께 대구경북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군민들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통합신공항을 통한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한 대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군위 군수님과 군위군민 여러분의 대승적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0.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

-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 -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존경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구경북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제사정은 십수년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시군의 인구 소멸 위험도 해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시도의 경제와 시도민들의 삶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경북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로 세계로 재도약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입니다.

그동안 군위와 의성, 대구와 경북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오면서 지금 최종이전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까지 진행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2만4천여 군위군민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군위군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위군민 여러분!

통합신공항은 군위군민 여러분께서 품고 키워오셨습니다.

오직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된 하늘길을 열고자 했던 군민들의 소중한 뜻과 열망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7월 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구위우보 단독후보지와
구위소보·의성비안 공동후보지 두곳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공동후보지는 7월 31일까지 구위군의 유치신청이 있을 경우
최종이전지로 선정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보 단독후보지를 갈망하셨던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허탈함과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직 구위군의 미래와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해 총정어린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잊지않고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대구경북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의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여 일입니다.

만약 통합신공항 건설의 대역사를 무산시킨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대구경북 시도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있는 저희 두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신공항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군위군민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군위·의성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7. 20.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보도자료 【20. 7. 20(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작성자	과장	정창명		
			팀장	김충복	주무관	백영민
연락처	054-880-3112					

민선7기 전반전, 경북 문화관광은 변화의 새바람 ! 후반전, 코로나 19 이기고 힘찬 시동 !!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출범 및 관광진흥기금 100억원 조성 (10년간 1천억 조성) -
- 경북문화재단 설립,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들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강화 -
- 경북도, ‘한국의 서원 (소수·옥산·도산·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성공 -
- 포스트 코로나, 청정·힐링·안전한 콘텐츠 발굴로 뉴노멀 관광트렌드 선제적 대응 -

경상북도는 민선 7기 문화·관광·체육분야의 비전인 ‘세계로 열린 문화관광 경북’ 실현을 위해 전반기 2년간 분주히 달려왔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문화관광 일자리 창출,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비롯해 경북을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중심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경북 실현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관광산업화로 개발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이 넘치는 경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먼저, 문화관광산업의 융·복합화와 시·군 통합마케팅을 수행할 컨트롤타워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출범으로 세일즈 마케팅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했으며, 관광정책 자문과 과제연구를 위한 경북관광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경북관광의 혁신체계(System)를 구축했다.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관광진흥기금을 2019년부터 매년 100억씩 조성해 10년간 1천억원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2019년 처음으로 총 90개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 중에 있는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인 관광두레사업과 관광벤처기업 및 관광호스트사업자(체험관광상품)를 앞으로 정상 운영궤도에 올리는데 집중하여 지역의 스토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노후화된 관광사업체 시설을 현대화(입식테이블, 개방형주방, 화장실 등)하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160억원을 투입해 600여개소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580여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접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동시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1천억원이 투입되면 북부권 10개 시·군과 협력해 뉴노멀 시대에 맞는 관광 매력을 갖추게 되는 동시에 지역 관광사업에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를 2019년 8월에 경북에서 4번째로 지정해 2023년까지 7497억이 투자되어 해상케이블카 설치, 포항운하 연계 관광자원 및 관광코스 개발, 축제 행사의 다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 마련과 특화된 관광브랜드를 조성 할 계획이다.

3대문화권 관광기반조성사업 총 43개 중 가야국 역사루트재현(성주, 고령), 음식디미방(영양), 금강송에코리움(울진) 등 24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역사와 자연’으로 빛어낸 경북만의 차별화 된 문화관광기반이 구축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새로운 타겟과 마케팅 혁신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기존 방식을 탈피해 변화된 관광마케팅 전략으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의 해외근로자 단체관광객 유치, 축제품앗이 운영, 인문학과 관광을 결합한 백두대간 인문캠프 등을 새롭게 추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2019년 경북방문 해외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해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대폭 확대했으며 TV 예능프로그램 스타마케팅, 가상현실 체험기술을 활용해 VR체험 관광콘텐츠도 개발했다.

다만, 올해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경북관광도 전례 없이 큰 타격을 입어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 집중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지 무료개방, 숙박업소 할인, 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은 침체된 관광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민선 7기 후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 관광에 집중해 청정·힐링·안전을 핵심콘텐츠로 발굴할 계획이며, 모바일과 SNS에 기반을 둔 관광마케팅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경북 실현

전통문화자원의 발굴·육성을 위해 국학자료 수집(4만2천여점), 고문집 번역(36점), 국학 전문인력 양성(111명), 전통공예산업육성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170명)으로 전통문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해 왔으며,

경북도의 문화예술 정책의 역량강화 및 문화자치 구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경북문화재단’을 설립(‘19. 7.11)하여 ‘세계를 감동시키는 신 한류 중심 플랫폼’을 비전으로 지난 7월 10일 정식으로 출범식을 가졌다.

또한, 독립예술단의 맞춤형 공연서비스(399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뮤지컬 제작·공연(22편 103회), 찾아가는 문화활동단체 지원(183개 단체)은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

올해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도립예술단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하여 무관중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 공연을 준비해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 지원 강화로 침체된 문화예술활동 회복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안동방문 20주년을 기념하여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20년 전 여왕이 걸었던 길(하회마을~농산물도매시장~봉정사)을 방문했고 앞으로 그 길을 ‘로열웨이(The Royal Way) 명품 관광자원화’ 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 될 전망이다.

□ 창조적 문화향유기반 확충과 미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에 올해 사업비 81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포항시 문화도시 지정 및 성주군 예비 문화도시 승인 : 5년 간 총 사업비 200억원 (국비100, 지방비 100) 투입

국내 최초 한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대한민국 한복진흥 거점 마련을 위해 설립한 한복진흥원이 오는 10월 개원해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박물관 등 주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46개 사업에 6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삼각벨트를 완성하여 북부권은 스토리콘텐츠, 동남권은 신한류콘텐츠, 서부권은 뉴콘텐츠 비즈니스 등 특화된 콘텐츠 창작인프라 조성 및 기업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

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10월 11일부터 45일간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을 주제로 개최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4대 핵심 콘텐츠 구축 및 고객 서비스시설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상시개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여 31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해외 공연단 및 사절단 방문으로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에 기여했다.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위상 제고

전국의 15%에 달하는 도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21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재 보유수 2,162건(2019.12.31.기준)

대표적 사업으로 월정교 복원, 천마총 리모델링 전시관 준공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 임청각 복원을 통해 경북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 제정된 ‘신라왕경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6779호)’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봉화군에 유치한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용 목재 등 수리재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영주 부석사와 안동 봉정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이어, 2019년 7월에는 소수·옥산·도산·병산 등 도내 4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14건 중 5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 경북소재 세계문화유산(5건) : 석굴암·불국사(1995),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한국의 역사마을

- 하화양동(2010), 산사한국의 산지승원-부석사,봉정사(2018), 한국의 서원·소수도산·병산·옥산(2019)

특히, 올해에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0 세계유산축전 : 경북’을 경주, 안동, 영주에서 8월 한 달간 개최하여 경북의 세계유산 가치를 전 국민과 더불어 향유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경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의 2022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 스포츠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별 특화된 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스포츠 대회(13회),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146회) 개최로 33만여명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였으며, 향후 220여개 대회 개최를 통해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민의 스포츠복지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국민체육센터(19개소),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4개소) 등 체육진흥시설(125개소)을 지원하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였고 특히 2021년까지 경주에 동하계 훈련이 가능한 에어돔 축구훈련장(100억원)이 조성되면 주변의 관광, 숙박 인프라와 연계한 국내외 전지훈련의 최적의 장소로 기대된다.

생활체육교실 운영(297개),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24,760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251명) 등 수요자 중심의 체육프로그램으로 도민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18개)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45명)를 통해 사회통합의 스포츠 환경 구축으로 스포츠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 전국체전 정상개최를 통한 국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올해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108개 경기장을 개·보수하고 개·폐회식, 성화 봉송·수송 등 대회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 전국체전 연기사례 없음 / 취소사례 : 중일전쟁(1938~44년), 6·25전쟁 첫 해(1950년)

이에 이철우 지사는 현장을 신속히 판단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0일 국무총리에게 ‘전국체전 순연’ 건의 후 25일 차기개최지 울산을 찾아 송철호 시장에게 순연 협조를 요청했고, 7월 3일 대회 개최 5개 시도 간 대회순연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합의로 경상북도는 국민과 선수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1500억원의 막대한 예산 손실을 막았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상북도는 내년 전국체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화합과 치유, 위기 극복,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북대표 도서관 구현

지난해 11월 13일 개관한 경북도서관은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도청 신도시에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서 개관이후 도서관을 찾은 이용객(‘20. 6.30.기준)은 총 7만827명으로 1일 평균 525명, 회원등록 9854명, 대출 건수 7만5천건 등 경북의 새로운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비상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하고 서비스 다양화를 모색하여 문화도시 경북에 걸맞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경북의 저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잘 준비하여 경북 23개 시·군 어디에서나 국내·외 관광객이 만족하는 글로벌 관광지역으로 거듭 나도록 할 것이며, 경북형 뉴노멀 문화·관광·체육 정책으로 도민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

복하여 ‘다시 뛰는 경북’ 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